

# 여성 영화인 82명, 칸 레드카펫서 여성연대 선언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의 주 상영관인 루미에르 대극장 레드카펫에서 배우, 감독, 제작자 등 82명의 여성영화인이 "성평등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칸프랑스) | AP·뉴스시

## 내가 왜 떴게?

우리를 '욕'하게 만든 '미운 손'

●스티븐 연-욕일기 좋아요? :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 욕일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스티븐 연은 최근 영화감독 조 린치의 어린 시절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 알고 눌렀는지 모르고 눌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필 이 사진 속에서 조 린치가 입고 있는 옷의 문양이 욕일기 패턴이었던 것.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스티븐 연은 영문과 한글로 된 사과글을 잇달아 올렸다. 스티븐 연씨, 욕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시기한 물건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욕'하게 만드는 주범이니 조심 또 조심해주시길. 마지막으로 한 누리꾼의 일침. "스티븐 연씨, 한국사람들 스키깡은 안 돼도 독해는 잘 합니다".

생얼? 노생얼? 예쁘면 됐지 뭐!

●신아영-소진 맨 얼굴 : 방송인 신아영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걸스데이 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소진은 가려두어 이쁨포스 뽀뽀. 맨얼굴이 이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봄"이라는 글을 곁들여 소진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어디가 생얼?", "풀메이컵이다", "살짝 화장했다", "생얼이 맞다"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으음... (이게 왜 중요함?).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심사위원장 블란쳇 "성차별 함께 대응" 미투운동 촉발 두베네이 감독도 참석 70년간 황금종려상 여성감독 단 두명 올해 여성 심사위원 5명, 수상작 관심

여성연대의 힘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구상에서 보편 소수가 아닌 데도 꼭 영화산업 안에서는 소수가 된다는 날선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 연대해 나가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9일 개막한(이하 한국시간) 제71회 칸 국제영화제가 13일까지 첫 주말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영화제 전반부 최대 하이라이트는 여성 영화인들의 연대와 도전을 향한 외

침이다. 칸 역사에 기록될 명장면까지 연출됐다. 13일 오전 1시 영화제 주상영관인 루미에르 대극장 레드카펫에서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빅이벤트가 펼쳐졌다. 배우와 감독, 작가, 제작자, 편집자, 배급담당자 등 영화 산업에 있어서 분야를 망라한 여성영화인 82명이 동시에 레드카펫에 올랐고, 이들은 함께 도열해 여성연대를 선언했다.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촉발된 '미투'(#Me Too)도 당했다) 운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여성연대에 힘이 실린 분위기가 이번 칸 국제영화제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영화인들의 단단한 결의가 느껴진 명장면이었다. 82명의 여성영화인은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걸스 오브 더 선'의 공식상영 레드카펫을 '선언'의 무대로 활용했다. 여성

감독인 에바 후손이 연출한 이 영화는 쿠르드족 여성 부대원들의 이야기. 이에 맞춰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배우 케이트 블란쳇과 크리스틴 스투어트 등 82명은 레드카펫 위에 함께 올랐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감독 에바 두베네이도 참석했다. 이들이 레드카펫을 꽉 채운 장면은 그 자체로도 장관이지만, 이들이 내놓은 성명은 더 큰 메시지로 다가왔다. 미리 준비한 A4 1장 분량의 성명서를 낭독한 케이트 블란쳇은 "영화 산업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의 위치"라며 "여성으로서 우리 모두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에 맞서 여성끼리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46년 출범한 칸 국제영화제는 그간 여성감독 등 여성영화인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남성 편향적이란 시선은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성명 발

표에서도 케이트 블란쳇은 오랜 칸의 역사를 통해 1688명의 남성감독이 루미에르 대극장을 올라갔지만 여성감독은 82명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영화제가 지나온 70년간의 역사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여성감독은 1993년 영화 '피아노'의 제인 캠플이 유일하다. 2년 전 명예황금종려상을 받은 벨기에 감독 아그네스 바르다 감독까지 더하면 두명이다. 때문에 올해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9명 가운데 심사위원장인 케이트 블란쳇을 포함해 5명이 여성영화인으로 채워진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여성연대의 외침까지 더해지자, 칸에서 만난 영화인들은 5명의 여성 심사위원들이 발휘할 섬세함이 올해 수상작(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칸 국제영화제 관련기사 12편 (칸프랑스) | go11024@donga.com

**나눔 Lotto**  
고양 어린이 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어린이박물관은 볼거리만큼은 2관급이며, 10개의 테마 전시실과 120개의 놀이시설로 꾸민 문화 공간입니다.

1등 당첨번호: 14 20 23 31 37 38  
2등 보너스 번호: 27

1등 총 당첨금: 1,848,485,326,125

| 등위 및 당첨게임 수           | 당첨금(원)    | 당첨금 내역  |
|-----------------------|-----------|---|
| 1등 6개 숫자일치            | 7         | 2,640,760,875 원<br>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
|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 57        | 54,050,662 원<br>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
| 3등 5개 숫자일치            | 1,850     | 1,665,345 원<br>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
| 4등 4개 숫자일치            | 91,180    | 50,000 원  |
| 5등 3개 숫자일치            | 1,561,638 | 5,000 원   |

※1등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증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 이상입니다.

• 나눔로또 콜센터: 지역번호 159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 시 주의 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0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차인 복권 구매는 중독의 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www.goc.or.kr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아프냐? 나도 아프다!

## "남으로..." 안데르센, 인천 지휘봉 잡는다

(전 북한축구대표팀 감독)

실력 검증, 악화된 팬심 달랠 적임자 감독 취임은 러 월드컵 휴식기 될 듯

본지 단독  
은 안데르센(55·노르웨이) 전 북한 축구대표팀 감독이 새로운 직장을 찾은 분위기다. 새 행선지는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유력하다. 복수의 K리그 소식통은 13일 "안데르센 감독이 인천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현재 부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인천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입을 모았다. 안데르센 감독의 취임 시기는 일단 2018러시아월드컵 휴식기가 유력하다. 인천은 이기형(44) 감독과 결별하면서 박성철(43) 코치를 임시 감독대행에 선임했다. 10일 폴 트레이닝부터 선수단을 지휘한 박대행은 13일 상주 상무 원정에 이어 20일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까지 맡고 월드컵 휴식기를 즈음해 안데르센 감독과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부터 북한대표팀을 이끌었던 안데르센 감독은 팔 체르나이(헝가리) 감독 이후 북한 A대표팀을 맡은 역대 두 번째 외

국인 사령탑이다. 나름 인상적인 족적도 남겼다. 부임 첫 해 8차례 A매치에서 6승1무1패를 거뒀고, 동아시아컵 본선 진출과 함께 1년 계약연장에 성공했다. 최근 마무리 된 2019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 지역예선에서도 초반 부진을 극복하며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연은 이어갈 수 없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가 컸다. 3월 안데르센 감독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일단 아시아에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아시안컵 예선 당시 북한의 마지막 상대였던 홍콩이 축구협회 차원에서 안데르센 감독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홍콩 부임설'에 무게가 실렸으나 한 달 넘도록 홍콩대표팀 감독이 공식인 가운데 인천이 뒤늦게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인천은 실력이 검증된 사령탑의 선임을 통해 잔뜩 악화된 여론을 달래는 한편, 화해 무드가 조성된 남북관계에서도 스포츠 차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 안데르센 감독의 선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